

MZ세대 기후변화의 개인적 규범과 책임 귀속이 친환경 여가행 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최소영¹ · 김영재²

¹중앙대학교 석사 · ²중앙대학교 교수

The Influence of Personal Norms and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on Pro-Environmental Leisure behavior Intentions among the MZ Generation

Choi, So Yeong¹ · Kim, Young-Jae²

¹⁻²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environmental leisure behavior intentions and key factors of the Norm Activation Model(NAM) among the MZ generation. Specifically, it investigates how ascription of responsibility(AR) and personal norms(PN) influence engagement in pro-environmental leisure behavior intentions. The study population consists of South Korean individuals in their 20(Generation M) and 30(Generation Z) who actively participate in leisure behavior intentions, with a total sample of 265 respondents. The study employed research instruments measuring three key factors: pro-environmental leisure behavior,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and personal norm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6.0,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personal norms were the strongest predictor of pro-environmental leisure behavior. Furthermore, gender and educational background played a significant role, with personal norms having a notable impact on pro-environmental leisure behavior across different groups. However,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was found to significantly influence pro-environmental leisure behavior intentions primarily among female participant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crucial role of personal norms in promoting sustainable leisure activities intentions and suggest that gender-based difference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for the MZ generation.

Key words : MZ generation, pro-environmental leisure behavior,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personal norms

주요어 : MZ세대, 친환경 여가행동, 책임귀속, 개인규범, 기후변화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음.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Young-Jae

E-mail: yjkim@cau.ac.kr

Received: Jan, 31, 2025 Revised: Mar, 7, 2025 Accepted: Mar, 17, 2025

I. 서론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사회적 가치에 민감하며, 환경 문제에 관심이 크다(김미경, 장안리, 2022). 이들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환경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의 행동으로 연결하는 특징이 있다(서현정, 윤정섭, 2022). 특히 MZ세대는 친환경 소비와 재활용 등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 행동을 실천하는 경향이 있다(김현준, 2023; 박혜영, 이용수, 2021).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주로 일상생활과 소비 행태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들이 자주 참여하는 여가활동과 연결된 친환경 행동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박이레, 송청위, 유나리, 2021).

MZ세대의 여가활동에서 친환경 행동이 촉진되는 방식은 다양한 사회적·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문진욱, 2024). 즉, 그들의 행동 변화와 기후변화 대응은 정책적,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일상의 행동 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기존 기상-기후 행동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범, 환경 인식, 행동 의도 등 다양한 요소가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오수빈, 윤순진, 2022). 이에 개인의 행동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여가 활동과 친환경적 행동의 요인 간 관계에 대한 기초연구는 필요하다.

친환경 행동(pro-environmental behavior)은 개인이나 집단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Kollmuss & Agyeman, 2002; Stern, 2000). 특히 자연을 기반으로 한 야외 여가활동은 친환경 행동의도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다. 즉, 야외 여가활동은 개인이 자연과 직접 상호작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 보호에 대한 행동의식을 강화한다(Thapa, 2010). 이처럼 여가활동과 친환경의 행동간 관련성이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환경 행동 연구에서 규범활성화모델(Norm Activation Model; NAM)은 중요한 이론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자발적이고 도덕적 의무에 기반한 친환경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다(Schwartz, & Fleishman, 1982). 특히 규범활성화모델은 개인의 규범이 활성화될 때 도덕적 책임감이 환경 행동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강조한다(Schwartz, 1977). 이 모델은 결과 인식, 책임 귀속, 개인적 규범이라는 세 가지 주요 변인을 포함한다. 그중 자신의 책임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환경친화적 행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책임 귀속(Ascription of Responsibility)과 자기 행동을 도덕적 의무로 인식하는 내면적 동기를 의미하는 개인적 규범(Personal Norms)은 환경 보호 행동의 중요한 예측 변수다(Schwartz, 1977).

여가활동은 개인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주지만, 환경적 관점에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즉, 여가 활동이 환경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하거나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서용, 김선희, 2016). 예를 들어, 자동차를 이용한 장거리 여행, 에너지 집약적인 여가 스포츠, 대규모 관광 인프라 조성은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고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친환경 여가행동은 생태계 보호와 지속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장려하며, 장기적으로는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은 개인의 행동과 자연환경 간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개인적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다(박이레 외, 2021). 이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과 개인적 규범이 활성화되며, 이는 친환경 여가행동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범활성화모델의 주요 요

인인 책임 귀속(Ascription of Responsibility)과 개인적 규범(Personal Norms)이 MZ세대의 친환경 여가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MZ세대가 인지하는 책임 귀속(Ascription of Responsibility)과 개인적 규범(Personal Norms)이 친환경 여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참여자는 대한민국 20대(M세대)와 30대(Z세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평소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남녀를 중심으로 총 265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결과, 성별은 남성 40.0%(106명), 여성 60.0%(159명)로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대에서는 M세대(1980년~1994년)가 66.8%(177명), Z세대(1995년~ 2005년)가 33.2%(88명)로 M세대의 비율이 높았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가 75.1%(199명)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3%(38명), 대학원 재학 이상 10.6%(28명)로 대학교 수준의 학력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 원 미만이 29.4%(78명), 200만 원~300만 원 미만이 27.5%(73명)로, 300만 원 미만 소득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후변화 교육 경험은 1~2회 받은 응답자가 51.7%(137명)로 가장 많았고, 한 번도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은 26%(69명)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은 성별, MZ분류, 학력, 월평균 소득, 기후변화 교육 경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2) 친환경 여가 행동의도

본 연구에서 친환경 여가 행동의도는 여가활동 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로 정의하였다(유숙희 외, 2018; Ajzen & Fishbein, 1980).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적인 여가 활동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려는 의향, 친환경적인 교통수단과 시설을 선호하는 정도, 여가 중 에너지 절약 실천 의지 등을 측정하기 위해 7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리커트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환경 여가 행동 의도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의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1차 신뢰도 검증 결과 친환경 여가행동 4번(Cronbach's α .896)을 삭제되었으며, 2차(6개문항) 신뢰도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898로 나타나 높은 내적 일관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규범 활성화 모델(NAM)요인

본 연구에서는 기존 규범 활성화 모델(NAM)은(Schwartz, 1977) 전문가 5인(스포츠 사회학 교수 2인, 여가레크리에이션 박사 3인)의 검토를 거쳐 책임 귀속(Ascription of Responsibility, AR)과 개인 규범(Personal Norms, PN)의 2개 요인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행동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포함하는 내용의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로 개인이

자기 행동이 환경이나 타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인식하는 정도 결과 인식(Awareness of Consequences)을 제외하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책임귀속은 친환경 행동하지 않았을 때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으로 정의하였으며(Steg & De Groot, 2010), 개인 규범은 기후변화 위험 인식과 책임 귀속을 통해 형성된 친환경 관광 행동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리커트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었다.

요인들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변수 간 상관계수 행렬을 분석하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요인 회전 방식으로는 직교회전법 중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적용하였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를 선출하여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4개의 문항이 투입되어 2개의 요인(개인규범, 책임귀속)으로 추출되었다. 1차 요인분석을 통해 책임귀속 7,5,4의 3개 문항이 탈락되었으며, 최종11개의 문항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KMO 측정값은 .916으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근사 카이제곱 값 2142.64, 자유도(df) 66, $p < .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총 누적 분산율은 67.193%로 나타나 척도의 설명력이 보여주었다. 각 요인은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개별 요인의 분산 설명력은 개인규범 56.017%, 책임귀속 11.175%로 나타났다.

<표 1> 규범 활성화 모델 요인분석

하위요인	문항	구성		f^2
		1	2	
개인 규범	3	0.826	0.244	.742
	2	0.822	0.290	.760
	4	0.818	0.237	.725
	1	0.797	0.290	.719
	5	0.727	0.182	.561
	7	0.709	0.283	.583
	6	0.683	0.285	.548
책임 귀속	2	0.155	0.890	.816
	1	0.175	0.867	.781
	6	0.461	0.691	.690
	3	0.459	0.599	.569
	8	0.490	0.575	.571
Cronbach's α		.884	.821	
고유치		6.722	1.341	
분산(%)		56.017	11.175	
누적(%)		56.017	67.19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2142.637 $df=66$, $p < .001$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16

요인 적재치는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문항만 포함되었다. 신뢰도 검증 결과, 각 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개인규범 .884, 책임귀속 .821로 각 요인의 내적 일관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MZ세대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수집된 총 응답 자료는 275부였으며, 응답 누락이나 일관성이 없는 10개의 자료를 제거하여 총 265부를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 분석은 SPSS 26.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설문 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

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각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책임귀속, 개인적 규범, 친환경 여가 행동요인의 선형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본 연구에서는 MZ세대 여가활동 참여자의 책임 귀속과 개인적 규범이 친환경 여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MZ세대의 친환경 여가행동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각 요인 간 판별타당도를 검토

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판별타당도를 충족하였다. 또한, 상관계수가 .7 이상인 요인이 없어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특히 친환경 여가와 개인적 규범($r = .847$)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친환경 여가와 책임귀속은 ($r = .658$)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 책임 귀속과 개인적 규범이 친환경 여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2>에서 본 연구 전체 참여자의 MZ세대 기후변화 책임 귀속과 개인적 규범이 친환경 여가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가지 요인이 친환경 여가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표 2> MZ세대의 기후변화 인식요인이 친환경 여가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β	t	R^2
			b	표준 오차			
전체 (n=265)	친환경 여가 행동 의도	상수	.130	.132		.985	.729
		개인규범	.784	.046	.738	17.006***	
		책임귀속	.160	.043	.161	3.715***	
성별	친환경 여가 행동 의도(남=106)	상수	-.042				.766
		개인규범	1.006	.086	.898	11.637***	
		책임귀속	-.027	.083	-.025	-.327	
	친환경 여가 행동 의도(여=159)	상수	.363				.691
		개인규범	.654	.052	.663	12.594***	
		책임귀속	.236	.047	.262	4.972***	
교육 유무	친환경 여가 행동 의도(무=69)	상수	.047				.878
		개인규범	.837	.059	.855	14.115***	
		책임귀속	.110	.059	.113	1.867	
	친환경 여가 행동 의도(유=137)	상수	.133				.645
		개인규범	.823	.076	.726	10.815***	
		책임귀속	.127	.073	.117	1.745	

*** $p < .001$

$R^2 = .729$ 로, 추정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F값은 $355.562(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연구 모형이 적합하고,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친환경 여가행동의도에 대해 개인적 규범 인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결과 남 MZ 세대에서는 개인적 규범 요인($\beta = .898, t = 11.673, p < .001$) 친환경 여가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임 귀속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여 MZ 세대에서는 개인적 규범 요인($\beta = .663, t = 12.594, p < .001$)과 책임 귀속($\beta = .262, t = 4.972, p < .001$)이 친환경 여가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교육 경험을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기후변화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집단과 1~2회 교육받은 집단 간 비교만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구분의 근거는 MZ세대 대부분에서 기상 관련 교육을 3회 이상 이수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3회 이상 교육받은 집단을 포함하면 연구 결과에 외적 변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교육 유무에 따른 결과 교육받지 못한 MZ 세대에서는 개인적 규범 요인($\beta = .855, t = 14.115, p < .001$) 친환경 여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임 귀속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교육을 1~2회 받은 MZ 세대에서는 개인적 규범 요인($\beta = .726, t = 10.815, p < .001$) 친환경 여가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임 귀속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는 MZ세대의 친환경 여가행동의도에 책임 귀속(Ascription of Responsibility)과 개인적 규범(Personal Norms)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개인적 규범이 친환경 여가행동의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MZ세대의 친환경 여가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자신의 환경적 가치를 표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회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MZ세대는 개인적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강한 동기가 있으며, 특히 여가활동을 통해 이러한 신념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나타낸다(윤지인, 김지혜, 2018; 이수현, 2000). 또한 MZ세대는 기후변화를 개인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로 연결 짓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인식은 책임감을 통해 규범적 신념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전은영, 이승환, 2024). 즉, 개인적 규범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도덕적 의무감을 표현하는 행위로 나타나 여가활동 중 환경 보호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을 증가시키며, 자기 통제적 성격으로 이는 여가활동 중 환경에 해로운 행동을 자제(김종흠, 최승희, 2020)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규범을 기반으로 한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여가활동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MZ세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인적 규범이 활성화될 때 자발적인 환경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김미경, 장안리, 2022)는 것이다. 이는 친환경 여가활동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통해 개인이 규범적 신념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결과에서 개인적 규범이 친환경 여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 규범이 친환경 행동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 집단에서는 책임 귀속이 친환경 여가행동의도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책임 규범 형성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과 남성은 사회적 규범과 역할에 대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부정적 감정에 더 민감할 수 있어, 책임 귀속에 따른 죄책감이나 도덕적 감정을 더 강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황운성, 조성진, 2019).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개인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에 자신이 이바지한다고 인식할 경우, 이러한 책임의식은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재활용과 같은 환경친화적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Han et al., 2019)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사회적 환경 인식이 개인적 규범과 책임 귀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캠페인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행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 개인적 규범이 친환경 여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책임 귀속, 개인적 규범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와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각 세대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행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에 따른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개인적 규범이 친환경 여가행동의도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규범(PN)은 특정 행동을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하는 개인의 내면적 신념과 책임감으로 정의된다(Beck & Ajzen, 1991; Ravis et al., 2009). 따라서 기후변화 교육 유무의 차이

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기후 교육에 대한 변화를 말할 수 있다. 이는 황세영, 강경균(2024)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후변화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로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기후변화를 실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지만, 자신의 문제라고 보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참여 기회의 부족과 무관심이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환경교육이 단순 체험이나 과거 영상 시청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김범규, 2021.07.01.).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인적 규범은 사회적 압력에서 비롯된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과는 구별된다. 개인적 규범은 도덕적 규범(moral norm)이나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라는 용어와 유사하게 사용되며, 행동의 윤리적 정당성을 평가하는 데 주요한 기준이 된다(Conner & Armitage, 1998). 즉, 개인이 윤리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행동 여부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느끼는 정도와 관련되며, 행동 의도와 실질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Kaiser & Scheuthle, 2003; Leonard et al., 2004). 이는 MZ세대가 기후위기를 단순히 외부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개인의 도덕적 신념과 행동 규범으로 내재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소현진, 202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MZ세대의 책임 귀속, 개인적 규범이 친환경 여가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적 규범은 친환경 여가행동의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MZ세대가 개인의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동기가 강하며, 특히 친환경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의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성별 따른 기후변화 책임 귀속, 개인적 규범 인식 중 개인적 규범은 성별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여성 참여자들에서 책임 귀속이 친환경 여가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환경 문제에 대해 느끼는 책임의 강도가 높게 인식하며, 환경 행동 수행의 주요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환경교육 여부에 따른 결과 모든 집단에서 개인적 규범은 친환경 여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육의 의미보다는 특정 행동을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하는 개인의 내면적 신념과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친환경 여가행동의도에 대한 개인적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데이터와 구체적 여가활동 사례를 활용한 특성적 위험 인식의 심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보완하는 개인적 감각의 자극을 통해 더욱 내재화된 행동 동기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MZ세대가 스스로 친환경 여가 문제에 대해 규범적 책임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한다. 첫째, 친환경 여가행동의도의 지속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한 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단면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되었으나, 여가활동 시간에 따라 어떻게 유지되거나 약화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은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행동 변화의 지속성을 높이는 전략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다른 세대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는 다소 무리

가 있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인구 사회적 요인과 기후 인식과 행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본 연구에서 확인된 만큼, 성별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변수와 이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구집단에 적합한 맞춤형 접근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경, 장안리(2022). MZ세대의 환경 인식과 행동 및 소셜미디어 역할 이해를 위한 탐색적 연구: 심층 인터뷰를 이용하여. **광고 PR실학연구**, 15(3), 37-66.
- 김범규(2021.07.01.). 환경정책 속도 못 따라가는 환경교육.....**엇박자 시스템 여진. 이넷 뉴스**. <https://www.enetnews.co.kr/ews/articleView.html?idno=4015>.
- 김서용, 김선희(2016). 기후변화 의식과 대응행동 결정요인 분석. **행정논총**, 54(1), 179-206.
- 김종흠, 최승희(2020). 규범과 통제소재가 개인의 친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1(4), 657-678.
- 김현준(2023). MZ세대의 특성이 메타버스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문진욱(2024). MZ세대의 문화가치에 따른 소비 성향과 선택속성 관계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박이레, 송청위, 유나리(2021). 기후 변화 위험 인식은 실제 대응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정책 지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6(1), 75-102.
- 박혜영, 이용수(2021). 기후변화 예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지식 변인을 추가한

- 계획된 행동 이론 확장 모델 적용. *광고PR 실학연구*, 14(4), 65-90.
- 서현정, 윤정섭(202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9), 29-45.
- 소현진(2021). 친환경 소비 행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의식, 지각된 소비자 효율성과 개인적 규범의 관계를 중심으로. *광고연구*, 129, 196-223.
- 오수빈, 윤순진(2022). 기후위기 위험 인식과 대응 행동 의도 간 감정적 반응의 매개효과. *환경정책*, 30(4), 53-97.
- 유숙희, 김남조, 이훈(2018). 해석수준 이론을 통한 친환경 관광행동 영향분석: 실험기법 적용. *관광학연구*, 42(5), 11-29.
- 윤지인, 김지혜(2018). 친환경 패러다임에 근거한 한강공원 방문객의 환경인식, 장소애착, 친환경 행동의도의 관계 검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2(3), 121-132.
- 이수현(2000). 자연친화적 스포츠활동 참여와 환경의식 및 환경 보호 행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전은영, 이승환(2024). MZ세대의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식이 친환경 관광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규범 활성화 모델을 적용하여. *이벤트 컨벤션 연구*, 20(1), 273-292.
- 황세영, 강경균(2024). 기후변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실천 분석: 초·중등 교육에 갖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교육학회지*, 37(1), 181-201.
- 황윤성, 조성진(2019). 환경교육이 대학생의 이타적 가치, 결과지각 및 책임귀속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3(2), 241~258.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Prentice-Hall.
- Beck, L., & Ajzen, I. (1991). Predicting dishonest actions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5(3), 285-301.
- Conner, M., & Armitage, C. J. (1998).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review and avenues for further research.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8(15), 1429-1464.
- Han, H., Hwang, J., Lee, M. J., & Kim, J. (2019). Word-of-mouth, buying, and sacrifice intentions for eco-cruises: Exploring the function of norm activation and value-attitude-behavior. *Tourism Management*, 70, 430-443.
- Kaiser, F. G., & Scheuithle, H. (2003). Two challenges to a moral extens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ral norms and just world beliefs in conserva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5), 1033-1048.
- Kollmuss, A., & Agyeman, J. (2002). Mind the gap: Why do people act environmentally and what are the barriers to pro-environmental behavior?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8(3), 239-260.
- Leonard, L. N., Cronan, T. P., & Kreie, J. (2004). What influences IT ethical behavior intentions—planned behavior, reasoned action, perceived importance, 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formation & Management*, 42(1), 143-158.
- Rivis, A., Sheeran, P., & Armitage, C. J. (2009). Expanding the affective and normative component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meta-analysis of anticipated affect and moral norm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9(12),

- 2985–3019.
- Schwartz, S. H. (1977). Normative influences on altruism.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Academic Press, 10*, 221–279.
- Schwartz, S. H., & Fleishman, J. A. (1982). Effects of negative personal norms on helping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1), 81–86.
- Steg, L., & De Groot, J. (2010). Explaining prosocial intentions: Testing causal relationships in the norm activation model.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9*(4), 725–743.
- Stern, P. C. (2000). New environmental theories: toward a coherent theory of environmentally significant behavior. *Journal of Social Issues, 56*(3), 407–424.
- Trope, Y., & Liberman, N. (2010). Construal-level theory of psychological distance. *Psychological Review, 117*(2), 440–463.